'찾아가는 불교' 제언 대담

대전환, 찾아가는 불교

대중문화·예술 접목 콘텐츠 개발을

Q MZ세대를 위한 뉴미디어 포교·전법 방안을 제언해 주십시오.

김응철: 이들 세대를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적절한 음악이 부족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음악과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사실, 전 세대를 아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층을 다양화하고, 각 계층별로 책임질 수 있는 미디어 포교사들을 배출해서 활동하도록 촉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영섭: MZ세대는 관계성에서 자신이 주체임을 자신의 취향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내며, 온라인 환경 속에 이미지를 소비하는 데 익숙하고, 미래의 가치보다는 현재의 가치에 집중하고 그 결과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세대입니다. 이는 MZ세대를 지칭하는 미닝아웃, 플렉스, 욜로족, 딩크족, 파이어족 등의 신조어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MZ세대들이 볼만한 유튜브 콘텐츠가 없다는 것은 MZ세대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공간은 스님들 중심의 공간에서 사부대중들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확장된 공간은 MZ세대가 직접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들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MZ세대들은 자신의 취향, 생각들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며 상호 소통함으로써 불교의 대중적인 친밀감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대를 동시에 아우르는 유튜브 콘텐츠의 제작은 세대별 개성과 취향이 뚜렷하게 서로 다른 동시대적 니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대별 맞춤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통한 대중화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관 스님: 사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는 법문 중계, 교리 강좌 등에 머무른 경우가 많긴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유튜브를 통한 교리 강좌, 염불 독경 등을 집에서 들으면서 불심을 통한 마음수련을 하는 사례가 많지만, MZ세대들은 빠르면서도 임팩트 있는 전달이 중요한 만큼, 불교계 언론매체에서 MZ세대들에게 맞는 유튜브 등을 적극 제작해서 알리는 방법도 필요해 보입니다.

불교 언론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큰스님들의 일대기, 어린이들이 만든 불교 연극, 인기 있는 젊은 불자 가수들을 활용하여 불교 가사를 넣은 트로트 등 재미와 감동, 불심을 전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MZ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네요. 현재 메타버스 등 다양한 가상공간에서의 포교도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19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듯이 불교계도 현재 변화하는 상황에 맞춘 가상세계에서의 법문, 불교 전파 활동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법 포교 현장과 이를 연구하는 교수들은 언택트 대담을 통해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찾아가는 불교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심산 스님: 세대 간 이해가 쉽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MZ세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스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20대 스님들 아니면 적어도 30대 스님들이 전면에 나서서 청년세대들과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대 간 소통 정말 쉽지 않지만 인간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불교야말로 수많은 종교들 중에 세대를 넘어선 소통이 가능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내부적으로 본다면, 젊은 스님들에게 무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스님들 사이에서도 젊은 스님들의 문화가 있는데, 나이든 스님들이 이에 대해 강압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Q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채식과 같은 불교와 접점이 있는 사회 트렌드와 접목한 전법 포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가 불교를 알리는 데 유망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그리고 그 활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영섭: 최근 드라마 〈빈센조〉에 등장하는 스님 캐릭터는 생경한 불교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불교가 현재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화적 형상은 불교 대중화를 위한 '찾아가는 불교'에 적합한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동시대적 니즈에 부합하는 전법·포교 콘텐츠가 문화적 형상으로 구현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대중예술과의 결합을 통한 전법·포교 콘텐츠들의 문화적 형상 구현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습니다. 최근 예능프로그램의 트렌드를 보면 니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예능프로그램은 대본 없이 출연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합니다. 템플스테이와 예능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전법·포교 콘텐츠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관 스님: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서 미디어를 활용해서 불교를 알리고, 스님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누구라도 편하게 와서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조계종에서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이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포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저변에 불교가 널리 퍼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지역 커뮤니티에 불교가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 가장 유망한 활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문화에 불교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한데, 트로트 형식의 찬불가를 통해 불교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산 스님: 간혹 영화나 코미디 등 영상물을 볼 때 불교에 대한 왜곡된 관점으로 표현되어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이러한 것을 공식 통로를 통해 정제되어야 합니다. 불교 소재가 문화 콘텐츠 속에 잘 스며 든다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내부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할 자세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열혈사제'에서는 가톨릭 신부들이 출연합니다. 기존 이미지와 정반대의 캐릭터지만 가톨릭 서울교구에서 드라마 자문과 검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평화방송의 경우 유튜브 채널로 드라마 장면을 보며 드라마 캐릭터와 신부들의 생각을 비교하는 토크 콘텐츠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유무형 유산도 많지만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면 대중들이 불교에 관심 갖게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불교를 위한 제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영섭: '찾아가는 불교'는 새로운 인연 맺기를 통한 불교의 대중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는 불자의 구성이 특정세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세대를 포함하고 있을 때 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불교는 불자의 대부분이 장년, 노년층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선입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불교가 어렵고, 대중친화성이 없다는 선입견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특히 청소년, MZ세대의 새로운 인연 맺기에 장애가 됩니다. 이러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MZ세대의 전법·포교 활동에 대중친화적인 요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콘텐츠와 대중예술을 결합한 전법·포교 콘텐츠로 청소년, MZ세대들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불교'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불교의 창조적 혁신, 불교의 인식의 대전환을 뜻합니다. 또한 불교와 대중예술을 결합한 다양한 전법·포교 콘텐츠의 문화적 형상 구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응철: 찾아가는 불교는 스님들이 포교현장을 찾아 나서는 것도 있으나 각 지역, 직능 단체의 불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지원하고 신행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도 정보사회에서 불교는 해로운 쓰레기 정보를 제거하고, 유익하고 보람 있는 정보들이 유통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정관 스님: 스님들은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종교에 비하면 너무 열악합니다. 스님 한 사람이 일인 다역을 하다 보니 포교에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본사별로 병원 전법단, 군 전법단, 어르신 전법단, 청소년 전법단들을 활용하여 못 오시는 분들을 직접 발 벗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젊어서 불사비를 많이 낼 때는 스님들이 전화도 자주 하시더니 나이 먹고 힘없다고 법당도 못 오게 한다는 어르신들의 푸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심산 스님: 우리는 세계일화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동안 민족, 국가, 종교간 분별을 해 왔지만, 세계는 하나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불교 가르침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요청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면 철저하게 지역사회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찾아오는 불자, 시민들에 기대던 불교계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전도선언문이 그냥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도, 전법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수적 다소 감소가 됐지만, 결속은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세대 간 소통과 전승이 약화된 것입니다. 불교가 가진 콘텐츠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사찰음식, 건축, 명상 등을 확대 재생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야 합니다.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사)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원로원장 설봉 성인(대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종회의장 조허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인륜 보현(보광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규정원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TEL 02-762-2459 FAX 02-742-2344